

「에이즈 상담 및 익명검사소」 “1~9월간 총 520명 이용, 4명 양성”

글_ 김은심 · 영등포레드리본정보센터 소장

미국에서 익명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청소년 클리닉, 학교 양호실, 민간단체, 동성애자 클리닉, 보건소, 무료 HIV 검사소, 병원, 직장내 양호실, 성병 클리닉 등으로 접근성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VCT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네덜란드 : 67% 내담자가 결과의 신속성으로 VCT 상담소를 선호한다. (방콕 에이즈회의 발표자료, 2004)
- 에이즈선별검사가 비음면에서 효과적이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5)
- 검사 전·후 상담 이후에 수혜자들의 위험행동이 줄었다. (CDC 자료)



서울, 창원, 대구 등 전국 3곳에서 검사 전후 상담과 익명 검사 실시

본회에서의 VCT는 검사 전·후 상담과 동시에 자발적인 익명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내담자에게는 반복적인 위험행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양성반응자에게는 감염사실을 조기에 진단받도록 함으로써 감염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타인으로서의 전파행동을 차단시켜 에이즈 예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VCT 상담소는 서울, 창원, 대구에서 예약제로 실시 중이며 상담과 검사 시간은 약 40~50분이 소요된다. 서울은 1월부터(매주 화요일·금요일), 창원과 대구는 9월부터(매주 금요일) 실시 중이며 특히, 서울은 9월부터 주 2회로 운영하고 있다.

내담자는 주로 고위험행동군, 상담실(전화·이메일 내방) 내담자 중 위험행동노출자, 6주 이전 검사자, 에이즈 포비아 등이다.



▲ Rapid HIV Test 모습

20·30대의 미혼남성들이 주로 이용

서울VCT 상담소는 1월에서 9월까지 520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4명의 HIV양성반응자(0.8%)가 발견되었다. 양성반응자 4명 중 3명은 동성애자·양성애자로 타 기관에서 양성진단 후 재확인 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의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도움을 위해 감염인 동료상담자와 연결하여 상담을 병행 실시하였다. 나머지 1명은 동성애로 인해 초기 감염증상을 겪고 1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건소로 연계했으며 본회 직원이 보건소까지 동행하여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서울VCT 상담소는 VCT를 경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2005년 9월 말까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수는 272명으로 이용 만족도는 99%가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내담자가 VCT를 경험한 후 혼자서 작성하였다. 설문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성비율 : 남(82%), 여(18%)

- 연령대 : 20대(50%), 30대(32%)
- 결혼여부 : 미혼(73%), 기혼(26%)
- 성적성향 : 이성애(92%), 동성애(3%)
- 우려할 만한 일이 있을 당시 성파트너 :
성매매(53%), 혼전경험(19%), 외도(8%), 동성접촉(5%)
- 콘돔사용여부 : 항상 사용(21%)
- VCT 상담소를 찾는 이유 : 신속성(39%), 익명성(25%), 웹사이트홍보(19%), 전문성(16%)

* 총 응답자 272명, 2005년 9월 말 통계

2005년 6월말 현재 내국인 누적 감염인수는 3,468명이며 이중 680명이 사망하여 2,788명이 생존해있으며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내국인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317명, 외국인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인은 21명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하였다. 한편 익명검사자 양성건수는 22건으로 양성발견자의 6.9%를 차지하였다.

감염상태 조기발견으로 건강유지 및 전파차단도모

본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VCT상담소를 통해 숨겨진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참여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유지시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부담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익명검사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검사의 활성화, 1:1면접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의 고위험행동을 줄이는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에이즈에 대한 예방효과, 더 나아가 국내 VCT 사업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CT 상담소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즉, 이 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VCT 상담소를 경험한 인구집단에 대한 자료의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